

자연고등학교 3학년 1학기 1회 전현지

확실히 작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3학년이 되니 은연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작년 이맘때의 날씨라던가 하늘이 어떻게든가 거기엔 어떤 꽃이 피었고 지금은 어떤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들은 전혀 기억에도 없는 데 지금은 좀 이른게 된 4월 초의 벚꽃이나 지금 학교 담장을 뒤덮고 있는 장미를 뽐낼지 기억하고, 이른 아침엔 구름이 많아 다소 흐리지만 정午엔 대부분 굉장히 화창한 햇빛이 복도를 바꾼다는 것을 만난다. 시험기간엔 평소 쳐다도 보지 않던 시사뉴스나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 그렇게 재미있다더니 지금 내 상태가 딱 그런가 싶다. 3학년이 되니 대학이라는 현실이 성공 앞으로 다가왔고 지금은 6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작년 이맘때 즈음엔 다들 정성식사학 복도에 상상이나 되어 웃고 떠들 시이었을 텐데 지금은 다들 고보에 귀찮은듯이 앉아 자습을 한다. 물론 때로 멍멍이 복도에서 당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세 지나가시는 선생님께서 각각의 반으로 돌려보내시는 모양이다. 요새 하도 날씨가 화창하니 식사와 간단하게 학교 뒤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걷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가 굉장히 좋아서 체육관도 짓지 못했는데 고등학교는 그에 비해 굉장히 넓어 산책로까지 있으니 굉장히 편한 것 같다.) 물론 산책로는 길으면 길을 두둑 우리의 미용실만큼 강하게 부채질하는 살림이지만. 내가 하도 친구들에게 동물원에 가고 싶다 정할거니, 내제는 날씨가 맑은 날마다 친구들이 인물은 동물원에 안가고는 하여 각자 집에 돌아온다. 으, 작년에 5월의 날씨가 이렇게 좋았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는데! 올해엔 일년내내 있던 45한 것들을 죄다 기억하게 될 것 같다. 벚꽃, 진달래, 철쭉, 장미에 최근 장미 공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노랑과 붉은 복꽃, 깊은 파란색의 하늘에 물개죽까지.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야간자율학습을 하기엔 날씨가 너무 화창하다. 이러다 하라는 공부 대신 하고 싶은 일들만 머리맡에 앉아 여흥이 있으면 계곡에서 시원하게 맨발을 담고 있는 상상을 하는 내가 또다시 볼데없이 좋은 날씨를 한탄하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다.